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빵돌이 빵순이

최근 몇 년 간 통계를 보면 한국인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30~35킬로그램 정도다. 밀가루가 주식인 미국이나 이탈리아의 절반 정도다. 섭취량이 적은 아이와 노인을 빼면 소비량이 상당하다. 성인 기준으로 매일 라면 한 개 이상을 먹는 셈이니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전부냐. 아니다. 과자나 면으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소비하는 양도 꽤 될 것이다.

더 있다.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가족의 사료로 쓰는 게 또 그만큼의 양이다. 그 가족 고기는 우리가 먹는 것 이니 크게 보면 소비량이 두 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얼마나 빵을 좋아하면 어느 고위 정부인사는 한 지역방송국 사장으로 근무할 때 법인가드로 다량의 빵을 구매하기도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나서 불여준 별명이 빵순이다.

사실 빵순이라는 말을 그에게 붙인 건 적절하지 않다. 빵순이, 빵돌이는 빵 좋아하는 이들의 애칭이고 절대 비판의 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빵! 나는 어렸을 때 책에서 이 낱말만 나오면 아주 힘들었다. 먹고 싶은데 빵 살 돈이 없었다. 유료 급식으로 나오는 빵도 사 먹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빵이란 말을 들으면 설레고 침이 고인다. 그 빵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여!

우리나라는 왕년에 밀을 꽤 심었다. 하지만 쌀 중심 농업은 밀 재배 면적을 밀어냈다. 사실 모를 내고 물을 넣어 기르는 벼는 면적당 소출이 밀보다 높다. 좁은 토

지의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면 쌀을 얻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밀은 별미였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점심으로 밀국수를 내어 먹었다. 요새 인기 있고 비싼 메밀 냉면은 과거에는 밀국수보다 더 낮은 음식이었다. 밀이 더 귀중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빵의 시대를 맞은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본은 국가의 목표를 일찍이 서구로 잡았고 큰 체구를 위해서는 고기와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문화가 조선으로 들어왔다. 단팥빵이 한국 대표 빵이 된 것은 그런 연유다. 동양적 팔을 서양의 빵에 넣어서 동서절충식으로 개발한 게 일본인이었던 까닭이다.

이렇듯 단팥빵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으나 빵이야 될 쪼가 있다. 나는 지금도 톡 하면 단팥빵을 사먹는다. 맛있는 단팥빵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잘 발효되어 폭신하고 겉은 윤기가 자르르 돌아서 식욕을 돋우는 그런 단팥빵을 좋아한다. 질 좋은 팥을 아끼지 않아서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단팥빵은 오랜 기간 고급 빵이었는데 돈 없는 서민은 전빵집에서 만든 걸 사먹었다. 오븐에 구운 것이 아니고 발효 반죽에 팥소를 조금 넣고 찐 것이라 값이 싸다. 만두와 함께 흰 김을 뽀으며 술에서 탄생하던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다. 한동안 거의 사라졌다가 복고풍으로 다시 시장이나 골목에 보인다. 유명한 안홍전빵(강원도 횡성군 안홍면에서 탄생)도 그런 빵의 일종이다.

막걸리로 발효한, 어쩌면 한국식 빵의 조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쌀 부족과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은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때부터 미국은 식량 원조의 일환으로 대량의 밀가루를 한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군정 시절부터 시작된 이 원조는 1950년대 내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밀가루는 단순한 대체식량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생활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1955년 미국의 PL480(공공법 480호, 일명 식량원조법)에 따라 한국에 밀가루가 무상 또는 저가로 대량 공급되었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빵소를 크게 늘렸다. 빵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한 셈이다. 이후 제빵회사들이 급증했고 동네 가게마다 빵이 깔렸다. 빵이 가득 든 리어카를 끌고 동네마다 배달하던 아저씨들이 기억난다.

선행으로 유명한 대전의 한 빵집이 직접 우리 밀을 심기 시작했다. 우리 밀은 한때 점유율 3퍼센트 가까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1퍼센트가 안된다. 이런 위기에 대형 빵집의 뜻 있는 의도는 칭찬받아야 한다. 너도나도 더 많은 빵집에서 우리밀을 쓰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식 칼럼리스트〉

社說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남긴 광주시 행정

광주시가 사실상 포기 직전까지 갔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급선호 한 결정이지만 광주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례 같이 씁쓸하다.

광주시는 그제 광주비엔날레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긴급 시민토론회를 갖고 상급 정채구간인 동광주(C·광산)C 간 11.2km에 대한 확장공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공사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오다 국비와 시비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 광주시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정부가 올해 추경에 367억원을 편성했는데 광주시가 분담금 367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정부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자 북구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긴급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가 확장사업을 포기하려 했던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사가 시작되면 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정부 예산을 늘리고 광

주시 부담은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총 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대로 진행될 경우 광주시가 매년 1000억원씩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능하면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내려온 정부 예산도 반납하느냐는 여론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들고 재추진에 나서게 됐다.

얼마나 급했으면 긴급토론회를 갖고 하루만에 재추진 방침을 정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온 사업인데 육은 자신이 먹는다는 하소연도 사실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재정이 열악해 가능하면 광주시 부담을 줄이고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를 못 내거나 좋지 않다면 비판받는 것이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운명이다.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런 사례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재추진을 계기 삼아 보다 원칙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 위한 제도와 쉼터 절실

6월 말부터 시작된 역대급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지만 폭염 속에서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택배나 급식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취재진이 지난 1일 12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만난 택배노동자 정모(46)씨는 온통 땀에 젖은 채 배송 일을 계속했다. 오전 7시부터 일을 시작해 오후 4시까지 267개의 택배를 배송했지만 쉬는 시간은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에어컨을 켜는 2~3분 뿐이었다. 쉬엄쉬엄 하면 좋을텐데 하루 물량이 다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 처량에 짐이 실리지 않는 현실에 휴식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가스불 앞에서 하루 2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는 광주 북구청 구내식당 급식노동자들도 땀뿔뒤어 겨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선풍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좁은 주

방에 뜨거운 열기를 감안하면 더위를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노동자들로 이들을 위한 휴식 보장 제도와 쉼터 등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상이변으로 폭염은 갈수록 일상아 되고 있다. 올해는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됐지만 연일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를 육박한다.

폭염도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선 사업주들이 제도 개선과 쉼터 마련 등 시설 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로 인해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한 만큼 미미미리 현장 점검을 통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기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기획단까지 만들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세종시 정부청사에 자리한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산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이며 남부권경제벨트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다.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면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해운·조선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어떠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출범 10년이 넘도록 '완성형 혁신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 유치와 자족기능 확보에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이제 광주·전남은 더 이상 수혜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 기능적으로 준비된 '정책 실행강역'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하에서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농업과 수산업에 기반한 조합중앙회의 '농·수협중앙회'의 광주·전남 이전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있어 광주·전남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에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DI, 한전KPS 등 전력 공공기관이 집적해 있고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자리하고 있어 기후에너지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에너지 기후정책의 실행지이자 실행거점으로 적합하다. 또 우리나라 서남해안권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K-에너지 산업벨트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시대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발전소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는 구조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산업모형을 구축하겠다는 복합적 구상을 약속했다.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중심부서는 기후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볼 때 광주와 전남이 신설부서의 주소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수협중앙회 이전 문제로 과거 국회에서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법 개정의 노력이 있어 왔다. 광주·전남은 농협중앙회 이전의 최적 입지조건 역시 갖추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한국농어촌공사,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수산업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으며 전남은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인 동시에 지역소멸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농·수협중앙회는 단순한 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의 개념을 넘어 농어촌 지역민과 농어촌 정책 실행의 플랫폼으로 그 기반이 지방이요 농어촌이다. 농협중앙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수협중앙회가 꼭 수도권에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처럼 기후에너지부와 농·수협중앙회의 광주·전남 이전은 지역특화 성장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가족단위 이주를 활성화할 교육, 문화,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성공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지역간 유지경쟁이 아니라 정책 적합성과 실행력 중심으로 논의되고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과제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경제벨트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대한민국형 균형발전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의료칼럼



이난영
조선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아이들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닦기, 칫솔질, 불소, 홈메우기 이 4가지이다. 충치란 입안에 상주하는 세균들이 당분을 에너지원 삼아 산을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이 치아를 파괴하는 질환이며 이론적으로는 세균과 당분을 제거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세균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충치균은 거의 대부분 엄마나 아빠, 조부모 등 보호자에게서 전파된다. 따라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세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구강관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치료해야할 충치가 있다면 빠르게 치료를 받고 축적된 치석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며 평소에도 양치질을 잘해서 입안의 세균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아이와 숟가락이나 컵 등을 공유하지 않는것도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일단 균이 전파된 아이의 입안에서 세균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칫솔과 치약을 사용해 이를 잘 닦아주는

부모가 알아둬야 할 아이들 충치 예방법

것이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칫솔을 사용해야하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뱉어나지 못하는 어린 유아라 하더라도 소량의 불소치약을 사용하여 이를 닦는 것을 추천하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취학연령의 아이들조차도 혼자서 이를 잘 닦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아이가 충분한 시간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잘 닦고 있는지 보호자가 매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나이에 형성된 양치습관은 이후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하는 생활습관이 될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양치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인에서 충치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그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지만 아이들에서 충치는 시작과 진행이 매우 빠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잠깐의 방심으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당분 섭취이다. 성인에 비해 아이들은 치아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를 훨씬 더 자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류는 대부분 충치세균이 좋아하는 성분이며 특히 끈끈한 특성이 있는 젤리나 사탕 등은 입안에 잔류 되는 시간이 길어 더 해롭다. 아이들로부터 이러한 간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양이나 빈도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취침전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대로 잠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세 번째는 불소의 올바른 사용이다. 아이들의 유치와 갓 맹출한 미성숙 영구치는 성인의 치아에 비해 단단하지 않고 약해서 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점을 어느 정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불소의 사용인데 1000ppm 이상 충분한 함량의 불소치약을 매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전문가 불소도포를 받는 것으로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과 불소도포는 충치 위험도가 높은 경우 3개월마다,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우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은데 이때 양치는 잘하고 있는지 새롭게 발생한 충치는 없는지 영구치 교환은 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은 홈메우기인데 영구치 어금니의 씹는면은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고 깊은 열구가 존재해서 음식을 잔사와 치태 축적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어금니의 깊은 열구를 막아주는 홈메우기는 씹는면 충치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충치는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아이들은 훨씬 높은 비율로 충치를 경험하고 있다. 한번 발생한 충치는 아무리 잘 치료해도 그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비가역적인 질병이므로 예방이 최선이며 소중한 우리 아이 치아를 충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치과의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無等鼓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내년 1월 1일, 60년 넘게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95세. 연평균 20%에 달하는 수익률로 전설이 된 그이지만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닌 원칙에 대한 집념, 책임의 미학 그리고 품위 있는 퇴장이다.

그는 최근 보유 주식 중 60억 달러(약 8조원)를 게이츠 재단과 가족 재단에 기부했다. 누적 기부액은 82조원을 넘겼다. 평생 “부의 대부분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했다. 자사주를 단 한 번도 팔지 않았고 매년 주주 서한에서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수까지 투명하게 밝혔다.

투자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견고하다.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 “우량한 회사를 합리적 가격에 사라”,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는 리더십의 본질을 새겨넣어 준다.

버핏은 자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명확한 원칙과 권한 위임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보다는 방향성과 기준을 정하고 각 부처

와 지역이 책임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행정 개혁의 모델이기도 하다. 절제의 삶도 그가 남긴 유산이다. 연봉 10만 달러, 전용기 없이 검소한 생활, 사적 욕망보다 공적 책임을 중시한 태도는 오늘날 리더들이 되새길 가치다. 무엇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건 퇴장의 방식이다. 그는 스스로 시점을 정했고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완전히 넘겼다.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출범했다. 기대와 불신이 교차하는 지금, 필요한 건 강기 빛 구조가 아니라 일관된 실행이다. 버핏은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지만 단 몇 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정 운영 역시 다르지 않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국민은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과 결과에서 신뢰를 읽는다. 그래서 이벤트보다 구조 개혁, 여론보다 복리처럼 축적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버핏이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국정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새 시대를 기대해 본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